

소·돼지지육 및 내장 내 물리적 위해요소 조사

-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자가치료 할 경우 부주의로 주사바늘이 부러져 지육에 잔류, 도축 후에도 발견되지 않고 유통되는 사례 발생
- 도축과정에서의 물리적 위해요소를 제거, 축산물(육류)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시민보건 건강증진 도모

1. 조사내용

- 조사기간 : 2007년 1월~2007년 12월
- 검사시료건수 : 12,000건
 - 소지육 : 1,000건(한우 400, 육우 200, 젓소 400)
 - 소내장 : 1,000건(한우 400, 육우 200, 젓소 400)
 - 돼지지육 : 10,000건
- 검사방법
 - 육안적인 지육 검사방법과 병행하여 소·돼지 지육을 이분도체 후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주사바늘, 금속 등 이물질 검사 실시
 - 소내장에 대해서도 이물질 잔류여부 검사 후 이물질 발견시 제거

2. 조사실적

- 소 : 2,214건
 - 소 지육 1,028건(한우 409건, 육우 216건, 젓소 403건)
 - 소 내장 1,186건(한우 462건, 육우 258건, 젓소 466건)
- 돼지
 - 돼지 지육 21,987건

3. 결과

- 소 내장에서 5건의 자석 및 쇠붙이 발견 ⇒ 제거